

은퇴노인 10가구 중 4가구, 중위소득 절반에도 못미쳐

2025년 노인인구 1000만명 돌파 전망
은퇴 노인빈곤율 39.4%…OECD 상위권
고용률 36.2%…10년 전보다 6.1%p 상승

노인인구 1000만명 돌파 시점이 2년 앞으
로 다가온 가운데 노인 가구 10가구 중 4가
구는 중위소득 절반에 못미치는 빈곤 가구인
것으로 나타났다.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
국가 중에서도 빈곤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
나타났다.

통계청이 26일 발표한 ‘2023 고령자통계’
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
는 950만명으로 전체의 18.4%를 차지했다.
한국 사회는 빠른 고령 인구 증가로 2025
년이면 노인인구는 1000만명을 넘어서 인구
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
전망이다.

오는 2035년에는 30%, 2050년에는 40%를
넘어설 전망이다.

기대여명은 2021년 기준 65세는 21.6년,
75세는 13.4년으로 전년보다 각각 0.1년씩 늘
었다. 기대여명은 기준 연령 후 몇 년을 더 살
수 있는지 계산한 평균 생존연수로 향후 65
세 노인은 86.6세, 75세 노인은 88.4세까지
살 수 있다는 계산이다.

2021년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
곤율(중위소득 50% 이하)은 39.4%다. 상대
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50%에 해당하는 ‘빈
곤선’ 이하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
한다.

노인들의 상대적 빈곤율은 점진적으로 낮
아지는 추세지만 OECD에서는 여전히 높은
수준이다.

2020년 자료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 한

국(40.4%) 다음으로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
국가는 라트비아(35.0%), 에스토니아(34.6%)
등이다.

주요국 중에서는 호주(22.6%), 미국
(21.6%)이고, 뉴질랜드(16.8%), 영국(13.1%)
등이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우리나라와 격
차가 컸다.

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코
스타리카(0.502), 멕시코(0.451), 미국(0.397)
다음으로 높은 0.376을 기록했다. 지표가 ‘0’
이면 완전평등, ‘1’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
한다.

소득 분배지표는 2016년 이후 개선되고 있
으나, 우리나라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
은 OECD 가입국 중에서도 아직까지 크게 높
은 수준이다.

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순자산액은
4억5364만원으로 1년 전보다 4316만원 증가
했다.

이는 전체 가구 자산액인 4억5602만원
과 비슷한 수준이다. 노인들이 가진 자산 중
에는 부동산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

82.4%로 가장 높았고, 저축은 12.4%로 타 연
령대에 비해 낮았다.

일하는 노인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.
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은 36.2%
로 1년 전보다 1.3%포인트(p) , 10년 전보다
6.1%p 상승했다. 고령자의 고용률은 15세 이
상 전체 고용률(62.1%)에 비해서는 낮은 수
준이나 2015년 이후 상승 추세다.

2021년 OECD 회원국(38개국)의 65세 이
상 평균 고용률 15.0%를 상회하는 국가는 한
국(34.9%), 일본(25.1%), 스웨덴(19.2%), 미국
(18.0%) 등 11개국이며, 우리나라가 가장 높
은 수준이다.

실업률은 2018년까지 3% 미만을 유지하
다 이후 계속 올라 2019년 3%를 넘어섰다.
지난해에는 실업률이 전년 대비 0.2%p 상승
한 3.8%를 기록으나 지난해에는 0.8%p 하락
한 3.0%를 기록했다.

고용률과 더불어 실업률이 상승했다는 것
은 과거보다 구직활동에 나서는 경제활동인
구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. 평균 은퇴 연령인
65세를 넘어서도 취업 전선에 나서는 노인

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
있다.

지난해 본인이 건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
는 65세 이상 일하는 고령자는 37.5%로 비취
업 고령자(21.9%)보다 15.6%p 높았다. 65세
이상 일하는 고령자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
스를 느낀다는 비중은 34.4%로 비취업 고령
자(36.4%)보다 2.0%p 낮았다.

2021년 일하는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은 본
인과 배우자 부담이 93.0%이고, 소득 20.7%,
소비생활에 13.9%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했
다.

2021년 일하는 고령자 중 81.9%는 향후 자
녀와 동거를 희망하지 않았고, 비취업 고령
자(72.9%)보다 9.0%p 높았다. 65세 이상 일
하는 고령자의 68.1%는 노후를 준비하고 있
고, 비취업 고령자(51.4%)보다 16.7%p 높았
다.

2021년 65세 이상 일하는 고령자가 노후
를 보내고 싶은 방법은 취미(36.1%), 여행·관
광(25.4%), 소득 창출(21.3%) 순이었다.

변용일 기자

롯데백화점, 가을 맞이 ‘패션위크’ …가을·겨울 상품 최대 50% 할인

패션 위크 기간 약 540개 브랜드 참여



롯데백화점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
까지 전국 매장에서 ‘패션위크’를 연다고 26일
밝혔다.

이번 ‘패션위크’는 패션 상품군 매출 구성비
가 가장 높은 달인 10월을 맞아 패션 상품군
할인, 사은 혜택은 물론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

시즌 행사, 이벤트, 팝업 등을 총망라했다.

먼저 패션 위크 기간 동안 약 ‘540개 브랜드’
가 참여해 가을, 겨울 신상품을 최대 50% 할인
판매한다. 특히 이번 패션 위크에서는 영계주
얼, 남성 정장, 셔츠 등 카테고리별 구매 금액
에 따라 최대 10% 상품권을 증정하고, 더불어

패션, 잡화 상품군에서는 10% 추가 할인 혜택
도 제공할 계획이다.

가을철 고객 수요에 맞춰 ‘시즌 특화 행사’도
진행한다. 먼저 가을철 피부 관리 수요가 높아
지는 시기임을 고려해 뷰티 상품군에서는 ‘어
텀 뷰티 홀리데이(Autumn Beauty Holiday)’
행사를 연다.

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다음, 에스
티로더 등 23개 럭셔리 뷰티 브랜드가 참여해
구매 금액별 10% 사은 혜택을 제공한다.

가구 상품군에서는 가을철 이사, 웨딩 수요
에 맞춰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‘홈
스타일링 페어’를 연다.

에이스, 시몬스, 템퍼 등 유명 브랜드의 침대
를 3~5%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,
구매고객에게는 침구, 베개 등의 특별 사은품
도 증정한다.

볼거리, 즐길거리 등 ‘패션’을 테마로 한 ‘체
험형 콘텐츠’도 풍성하다. 먼저 다음 달 7일 올
해 5호째를 맞이하는 유동업계 대표 마라톤 대
회인 ‘스타일런’ 행사를 연다.

잠실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을 출발해 올림
픽공원을 도는 7km, 12km 코스로 러닝이 끝나
면 유명 가수의 공연도 이어진다.

이슬비 기자



CJ푸드빌 제일제면소, ‘진한 들기름 막국수’

CJ푸드빌이 운영하는 제일제면소가 가을을
맞아 고소한 들기름 풍미를 살린 막국수 신메
뉴를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.

새롭게 선보이는 ‘진한 들기름 막국수’는 메
밀면에 통들깨와 김소스를 넣어 만든 비빔 메
밀국수다. 메밀 향과 들기름의 고소함을 담아
제일제면소의 특제 김소스로 감칠맛을 살렸
다.

차림상 메뉴도 마련했다. 차림상은 진한 들
기름 막국수와 삼겹수육, 묵은지, 새우젓으로

구성했다. 제일제면소의 콘셉트 스토어인 무
교주가 제일제면소의 차림상 구성도 눈길을
끈다. 해당 매장에선 한우육전과 묵은지를 진
한 들기름 막국수와 즐길 수 있다.

CJ푸드빌 관계자는 “풍성한 먹거리의 계절
가을, 제일제면소만의 노하우를 담아 남녀노
소 누구나 좋아할만한 신메뉴를 선보이게 됐
다”며 “가을 풍미를 가득 담아 입맛을 돋워줄
제일제면소의 진한 들기름 막국수를 즐겨보시
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

서선욱 기자

1인 가구 10명 중 4명 ‘월세살이’…소비 1위는 음식·숙박

남성이 여성보다 소비 많아…외식·차량 관련 지출 ↑

1인 가구의 10명 중 4명이 월세살이를 하
고, 집값보다는 배달음식을 주로 먹는 것으
로 나타났다. 연령이 높을수록 식료품과 보
건의 지출이 증가했고, 연령이 낮을수록 외
식과 문화생활에 소비하는 경향을 보였다.

통계청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‘KOSTAT 통계플러스’ 가을호를 발간했다.

이번 보고서는 ‘가계동향조사’를 통해 본 1
인 가구의 소비지출로 통계청 가계수지동
향과에서 작성했다.

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은 꾸준히
증가하고 있다. 1980년 4.8%에 불과했던 1
인 가구 비율은 2020년에 31.7%까지 올랐
다. 지난해 기준 1인 가구에서 청년층과 노
인층은 70% 이상을 차지한다. 가구주의 나
이는 39세 이하가 37.0%로 가장 비율이 높
았고, 그다음 60세 이상이 33.7%로 뒤를 이
었다. 1인 가구의 평균연령은 49.8세로 2인
이상 가구의 가구주 평균 연령(53.5세)보다
3.7세 낮았다.

1인 가구는 자동차 소유 비율이 39.3%로
2인 이상 가구(78.8%)보다 39.5%포인트(p)
낮았다.

1인 가구의 주택 점유 형태는 월세
(36.8%)가 가장 많았다. 다음으로 자가
(30.1%), 전세(23.1%), 기타(10.0%)의 순이
었으며, 2인 이상 가구는 자가(69.0%)가 가
장 많았으며, 다음으로 전세(13.8%), 월세

(11.9%), 기타(5.3%)의 순이었다.

1인 가구의 소비지출은 음식·숙박에서 가
장 많았다.

1인 가구의 지난해 월평균 소비지출액은
155만1000원인데,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지
출한 항목은 음식·숙박(27만6000원)이었다.
그다음이 주거·수도·광열(27만3000원), 식
료품·비주류음료(19만6000원), 교통(17만
7000원)의 순이었다.

가장 적게 지출한 항목은 교육(2만7000
원)으로 전체 소비지출액의 1.7% 정도에 불
과했다. 다음으로 주류·담배(3만5000원), 가
정용품·가사서비스(6만4000원)의 순이었
다. 1인 가구는 월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
아 실제 주거비 지출이 크고, 집값보다는 배
달음식 등 외식을 자주 이용해 음식·숙박 소
비가 식료품·비주류 음료 소비보다 지출이
컸다.

1인 가구 중에서도 연령별로 살펴보면 식
료품·비주류음료와 보건의 연령이 높을수
록, 음식·숙박, 오락·문화, 의류·신발, 교육
은 연령이 낮을수록 지출 비중이 증가하는
모습을 보였다.

39세 이하에서 가장 많이 지출한 항목은
음식·숙박(39만8000원)이었으며, 다음으
로 주거·수도·광열(29만원), 교통(21만1000
원), 오락·문화(16만5000원)의 순이었다.

60세 이상에서는 식료품·비주류음료(25

만4000원) 지출액이 가장 많았으며, 다음으
로 주거·수도·광열(24만원), 보건(16만6000
원), 음식·숙박(12만3000원)의 순이었다.

식료품·비주류음료와 음식·숙박의 식사
비는 서로 대체적인 역할을 한다. 연령이 낮
을수록 식사비 지출액이 증가했지만 육류,
과일 및 과일 가공품, 채소 및 채소 가공품
등 식료품·비주류음료의 지출액은 감소했
다.

연령이 낮을수록 집값보다 편리하고, 식
사 준비 시간이 필요 없는 외식을 선호하는
경향이 더 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. 또 59세
이하 가구의 평균 취업자 수가 60세 이상보
다 커 경제활동을 하며 가구 외에서 지출하
는 식사비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.

1인 가구의 실제주거비 지출액은 연령이
낮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. 연령이
낮을수록 월세의 비율이 높아지고, 자가 비
율이 낮은 결과로 분석된다.

성별로 보면, 남성 1인 가구의 월평균 소
비지출액(165만원)은 여성(146만6000원)보
다 18만4000원 많았다. 남성 1인 가구의 소
비는 음식·숙박, 교통 항목에서 지출이 많았
고, 여성 1인 가구의 소비지출은 식료품·비
주류음료, 보건 항목에서 지출이 많았다.

남성 1인 가구는 집값 보다 외식을 선호
하고, 차량 관련 지출이 많았다. 여성 1인 가
구는 60세 이상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가
정 요리를 선호하고, 건강 관련 지출이 컸다.

뉴스스

주담대 금리 다시 7% 넘어…영끌족 ‘한숨’

“하반기 금리 인상 불가피”

“이자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지 막막합니다.”
3년 전 주택담보대출 4억8000만 원을 받아
신혼집을 구한 직장인 박모(36)씨는 최근 밤
잠을 설치고 있다.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
3.5%로 네 차례 연속 동결해 한숨을 돌렸지만,
최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단이
7%대를 넘어섰기 때문이다.

박씨는 대출 금리가 2%대에서 최근 6%대로
급등하면서 은행 계좌를 확인하는 일이 잦아
졌다. 박씨는 “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을 열심히
갚고 있는데, 금리가 오르면서 갚아야 할 돈이
늘어났다”며 “지금보다 이자가 더 오르지 않을
까 걱정하고 있다”고 토로했다.

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%를 넘
어서면서 모든 대출을 끌어모은 이른바 ‘영
끌’(영혼까지 끌어모아)족들의 이자 부담이 증
가하고 있다. 특히 최근 특례보증자리론 금리
까지 오르면서 영끌족들의 이자 부담 가중이
가계 부실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
온다.

하반기 미국 등 각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
이 예상되고, 대출 금리의 상승세가 당분간 이
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. 정부의 대대적
인 규제 완화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다

소 늘었으나, 이전처럼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
힘든 상황이다.

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·신한·하나·우리
은행의 지난 21일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
4.270~7.099%다. 상단 금리가 지난달 말보다
0.130%p(포인트) 올랐다. 주담대 변동금리의
기준이 되는 코픽스(COPIX·자금조달비용지
수)가 두 달 연속 하락하며 하단 금리가 소폭
하락했지만, 시중은행들은 시중금리 상승을
고려해 상단 금리를 올렸다.

주담대 고정금리(혼합형)은 연 3.900~
6.469%로, 하단과 상단이 각각 0.070%p,
0.219%p 상승했다. 신용대출 금리(신용 1등
급·만기 1년 기준)도 4.420~6.420%p 4.560~
6.560%p 하단과 상단 모두 0.140p 올랐다.

시중금리가 상승세지만, 가계부채는 오히려
증가하고 있다. 지난 21일 기준 5대 시중은행
(KB국민·신한·하나·우리·NH농협)의 가계대
출 잔액은 682조4539억원으로, 8월 말 680조
8120억 원보다 1조6419억원 늘었다.

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지난 2월 이후 연
3.50%로 동결됐지만, 시중금리가 상승할 가능
성이 있다.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지
난 20일(현지시간)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, 연
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.

오유나 기자